

# ‘주한미군 일방감축 견제’…美 국방수권법 발효

의회통과 이어 트럼프 서명  
감축 제약 조문 재등장  
유럽 병력 감축도 제한  
‘한국 조선업 우선권’ 빠져

미국 행정부가 주한미군 규모를 일방적으로 줄이지 못하도록 명문화한 미국의 내년도 국방수권법(NDAA)이 18일(현지시간) 공식 발효됐다.

백악관은 이날 출입 기자단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를 통과한 2026년도(2025년 10월~2026년 9월) NDAA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NDAA는 국방부의 예산 지출과 정책을 승인하는 연례 법안으로, 상·하원 통과와 대통령 서명을 거쳐 발효된다.

2026 회계연도 NDAA는 법안을 통해 승인되는 예산을 한국에 배치된 미군 병력을 현 수준인 2만8500명 미만으로 감축하는 데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국방부 예산을 주한미군 감축에 사용하는 데 제약을 두는 조항은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사라졌다가 트럼프 집권 2기 들어 5년 만에 다시 나온 것이다.

아울러 한미연합사령부의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을 양측이 합의한 계획에서 벗어나는 방식으로 완료하는 데 예산을 쓸 수 없다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거



**앨버니지 호주 총리**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가 지난 16일(현지시간) 호주 시드니에서 유대인 축제 총기 난사 사건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나 한국과 일본, 유엔군 사령부 회원국 등과 협의했다는 내용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면 60일 후 금지를 해제한다는 단서가 달렸다.

조선업 분야와 관련해 한국과 일본 기업의 미국 내 신규 조선소 건설 관련 투자에 우선권을 주는 내용이 최종 확정된 NDAA에서 빠졌다. 대신 기존 공공 조선소 인프라 최적화 등 종합적인 조선 분야

개선 전략을 수립하라는 취지의 내용이 들어갔다.

이번 NDAA에는 주한미군뿐 아니라 유럽에 상주하거나 배치된 병력을 7만 6000명 미만으로 45일 이상 감축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밖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8억 달러(약 1조1800억원) 규모의 추가 군사원조와 이스라엘, 대만, 이라크 등 동맹국 또

는 전략적 협력 파트너에 대한 수백만 달러 규모의 추가 지원을 승인하는 내용이 담겼다.

내년도 미국 국방 예산은 9010억 달러(약 1330조원)로, 신형 잠수함, 전투기, 드론 기술 등 국방 분야 지출에 대한 의회의 초당적 지지가 반영돼 있다. ‘군인 급여 3.8% 인상’도 포함됐다.

연합뉴스

## 다카이치, 내년 봄 트럼프와 회담 추진

마이니치 보도…“동맹 강화·히토류 공급망 등 논의”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내년 봄 미국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여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19일 보도했다.

지난달 7일 국회에서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을 한 이후 중국과 접제한 갈등을 빚고 있는 다카이치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내년 4월 중국 방문을 염두에 두고 동맹국인 미국을 찾아 미일 동맹이 굳건하다는 점을 알리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군 함재기의 일본 자위대 전투기 대상 ‘레이더 조준’ 사건 이후에도 일본을 일방적으로 지지하지 않고 중일 갈등에 적절히 거리를 두며 사실상 ‘중립 외교’를 펼쳐 왔다.

마이니치는 다카이치 총리의 미국 방문 시기가 정확히 몇 월인지 언급하지 않았으나, 다카이치 총리는 이른 시점에 미국을 찾아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일본에 우호적인 발언을 끌어내려 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지난달 하순 다카이치 총리와 통화에서 중일 갈등 완화 필요성을 언급한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측이 원하는 견해를 적극적으로 표명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17일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되도록 조기에 회담하고자 한다”며 의욕을 드러냈다.

마이니치는 “다카이치 총리 측은 국제회의를 계기로 한 회담이 아니라 양국 간 방문 형태로 경제, 안보 등 폭넓은 분야의 협력을 논의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미일 정상회담이 성사될 경우 지난 10월 도쿄 회담에 이어 일본의 방위력 증강 계획을 다시 한번 나타내고 미일 동맹의 역지력 강화를 확인할 방침이다.

아울러 미일 무역 협상 당시 약속한 일본의 5500억 달러(약 813조원) 대미 투자 추진, 중국 의존도가 높은 히토류 등 중요 광물의 공급망 다변화도 회담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마이니치가 전했다.

연합뉴스



## “완벽한 시공, 완전한 안전”

대선소방그룹이 함께하겠습니다.



(자)대선소방설비산업

(주)대선이엔지

(자)대선산업개발

(주)일등소방

(주)유덕전기소방공사

(주)엔에프건설

광주 서구 유덕로6번길 34(대선소방그룹)

E-mail : hd0119@hanmail.net

Fax : 062-371-7118

Tel : 062-381-7119